
 <b>인천광역시</b>		<b>보 도 자 료</b>		 <b>인천의꿈*</b> <b>대한민국의미래</b>
		배포일자	2022년 12월 22일(목) 총 2매	
담당 부서	교육협력 담당관	담당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생교육팀장 이시영 ☎440-2171</li> <li>• 담당자 장진희 ☎440-2172</li> </ul>	
사진(이미지)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보 도 시 점		<b>15시 이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b>		

## 인천시, 5억 재정인센티브 획득

- 2022년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국무총리상 수상 -

- 인천시민대학 캠퍼스 건립비용 등 출연금 598억원 절감 성과 인정 받아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2년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발표대회’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해 5억 원의 재정인센티브를 획득했다고 밝혔다.

지방재정대상은 전국 지자체의 세출절감, 세입증대 등 우수사례를 발표·공유함으로써 지방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2008년부터 매년 개최하는 행사로, 인천시는 평생교육 플랫폼 개발을 통한 혁신적 재정 절감 성과를 인정받았다.

앞서, 전국 지자체가 제출한 169건의 우수사례 중 전문가 및 국민평가단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10건의 우수사례가 지난 13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본선에서 발표됐다. 인천시는 ‘신(新) 평생교육 플랫폼 개발로 혁신적인 재정 절감을 이루다’를 주제로 발표했다.

인천시는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과 함께 관내 8개 대학과 업무협약을 맺어 인천시민대학(인천시민라이프칼리지) 수강생들에게 대학의 캠퍼스, 도서관, 식당 등 커뮤니티 시설을 무료로 개방, 활용함으로써 시민대학 캠퍼스 8곳의 건립 비용 및 운영비 598억원을 절감한 성과를 발표해 큰 호응을 이끌어냈다.

특히, 대규모 재원이 필요한 평생교육분야에서 지자체의 재원부족을 극복하고, 지역사회와 대학과의 연계를 통해 학생수가 줄고 있는 현실에서 대학 캠퍼스를 “소유”에서 “공유” 관점으로 전환하여 공공재로 활용한 점은 평생교육 재정절감의 성공모델로 전국으로 확산 가능성을 크다는 점에서 더 의미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김경선 시 교육협력담당관은 “4차 산업혁명과 미래사회에 대비하기 위해평생학습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점점 커지고 있다”면서, “우리 시도 사회의 필요와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과 협력해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관련 사진은 행사(15시) 종료 후 인천시 홈페이지 '보도자료'에 게시될 예정입니다.